

11/7 월

왕상 18:18 엘리야가 말하였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힌 것이 아니라 왕과 왕의 아버지의 집안이 그렇게 하였습니다. 왕은 여호와와 계명을 저버리고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빌 3:7-8

7 그러나 나에게 유익이 되었던 것을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8 그럴 뿐만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또한 해로운 것으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탁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말 4:5-6

5 여호와와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내가 신언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6 그가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들에게로 돌아오게 하여, 내가 가서 저주로 그 땅을 치지 않게 할 것이다.”

눅 1:16-17

16 또 많은 이스라엘 자손을 주 그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17 그는 또한 엘리야의 영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보다 앞서 와서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거역하는 이를 의인의 현명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님을 위한 합당한 백성이 되도록 예비할 것입니다.”

요일 5:20-21

20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이해력을 주시어 그 참되신 분을 알게 하셨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그 참되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분은 참되신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21 어린 자녀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지켜 우상들을 멀리하십시오.

11/8 화

왕상 18:21, 37

21 엘리야가 온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말하였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두 의견 사이에서 우왕좌왕할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을 따르십시오. 그러나 바알이 하나님이라면, 그를 따르십시오.” 백성은 엘리야에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

37 오, 여호와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응답하시어 이 백성이 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것과 여호와께서 자신들의 마음을 다시 돌이키게 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마 4:8-10

8 마귀가 다시 예수님을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 주며 말하였다.

9 “그대가 엎드려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그대에게 주겠소.”

10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거라! 성경에 ‘주 그대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겨야 합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요 4:23-24

23 그러나 참된 경배자들이 영 안에서 진실함으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고 있는데, 바로 지금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이렇게 경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24 하나님은 영이시니, 경배하는 사람들은 영 안에서 진실함으로 경배해야 합니다.”

요일 2:18-20

18 어린이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시각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온다는 것을 여러분이 들은 것과 같이, 지금 이미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지금이 마지막 시각인 것을 압니다.

19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남아 있었을 것이지만, 그들이 나간 것은 그들이 모두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20 여러분에게는 거룩하신 분의 기름바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압니다.

계 12:11 그들은 어린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로 그를 이겼으며, 또한 죽기까지 자기들의 혼생명을 사랑하지 않았다.

11/9 수

약 5:17-18

17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심성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가 비가 오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하니, 삼 년 육 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으며,

18 그가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었고 땅이 열매를 내었습니다.

왕상 19:11-12

11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밖으로 나가 산 위, 여호와 앞에 서라.” 그리고 갑자기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불어 여호와 앞에서 산을 나누고 바위들을 산산조각 냈다. 그러나 여호와와 그 바람 가운데에 계시지 않았다. 바람이 지나간 다음에 지진이 일어났다. 그러나 여호와와 그 지진 가운데에도 계시지 않았다.

12 지진이 지나간 다음에 불이 일어났다. 그러나 여호와와 그 불 가운데에도 계시지 않았다. 불이 지나간 다음에 부드럽고 나지막한 음성이 있었다.

왕상 18:36-39

36 소제물을 바치는 때가 되자 신언자 엘리야가 가까이 나아가 말하였다. “오, 여호와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신 것과 제가 주님의 종이라는 것과 제가 주님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하였다는 것을 오늘 저들이 알게 하여 주십시오.

37 오, 여호와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응답하시어 이 백성이 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것과 여호와께서 자신들의 마음을 다시 돌이키게 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38 그러자 여호와와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장작과 돌들과 먼지를 삼켜 버리고 도랑에 있던 물을 활아 버렸다.

39 온 백성이 이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말하였다. “여호와, 그분께서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분께서 하나님이시다!”

롬 11:2-5

2 하나님은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이 엘리야를 두고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알지 못합니까? 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고발했습니다.

3 “주님, 그들이 주님의 신언자들을 죽였고 주님의 제단들을 헐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저 혼자만 남았는데, 그들이 제 목숨도 노리고 있습니다.”

4 그러나 그에게 하신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칠천 명을 남겨 두었다.”라고 하셨습니다.

5 그러므로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의 선택을 받은 남은 이들이 있습니다.

사 45:15 오, 구원자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정녕 주님은 자신을 숨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1/10 목

왕하 2:1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회오리바람에 실어 하늘로 데려가시려고 할 무렵, 엘리야는 엘리사와 함께 길갈을 떠났다.

빌 3:3-8

3 하나님의 영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자랑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참된 할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4 사실 나에게도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더욱 그러합니다.

5 나는 팔 일 만에 할례를 받았으며,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이며,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 말하자면 바리새인이며,

6 열정으로 말하자면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 말하자면 나무랄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7 그러나 나에게 유익이 되었던 것을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8 그럴 뿐만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또한 해로운 것으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탁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갈 2:20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이제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생명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생명입니다.
갈 5:24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은 육체를 그 정욕과 욕망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롬 8:6-9
 6 육체에 둔 생각은 죽음이지만, 영에 둔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7 육체에 둔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왜냐하면 육체는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도 않고, 또한 복종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8 육체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9 그러나 하나님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은 육체 안에 있지 않고 영 안에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11/11 금

왕하 2:2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나를 멀리 뱌엘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니 그대는 여기에 머무십시오.” 그러자 엘리사가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살아 계신 것과 스승님의 혼이 살아 있는 것을 두고 맹세하는데, 저는 스승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뱌엘로 내려갔다.
창 12:8 그는 그곳을 떠나 뱌엘 동쪽에 있는 산으로 옮겨 가서, 서쪽으로는 뱌엘이 보이고 동쪽으로는 아이가 보이는 곳에 천막을 쳤다. 그는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여호와와 이름을 불렀다.
요일 2:15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구라도 세상을 사랑하게 된다면, 그 사람 안에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수 6:1-2, 16, 20
 1 그때 여리고는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매우 굳게 닫혀 있어 드나드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2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그 힘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다.
16 일곱 바퀴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외치십시오! 여호와께서 이 성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20 그러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었는데,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고서 큰 소리로 외치니, 성벽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백성은 저마다 곧장 앞으로 나아가서 성으로 올라가 그 성을 점령하였다.
고후 4:13 또한 성경에 “나는 믿었기에 말하였다네.”라고 기록된 것과 같이, 우리도 동일한 믿음의 영을 가졌으므로 우리 역시 믿고 말합니다.
엡 6:12, 17-18
12 우리의 싸움은 피와 살이 있는 사람들에게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지배자들과 하늘들의 영역에 있는 악한 영적인 세력들에게 대항하는 것입니다.
17 그리고 온갖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구원의 투구와 그 영의 검을 받아들이십시오. 그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18 항상 영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힘을 다해 늘 깨어 있으며, 모든 성도들을 두고 간구하십시오.

11/12 토

왕하 2:8, 14
8 엘리야가 자신의 걸옷을 벗어 만 다음 그것으로 강물을 치자 물이 양쪽으로 갈라졌고, 두 사람은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갔다.
14 엘리사는 엘리야에게서 떨어진 걸옷을 가지고 강물을 치며 말하였다. “여호와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엘리사가 다시 강물을 치자, 물이 양쪽으로 갈라졌고, 엘리사는 건너갔다.
고후 4:10-18
10 예수님을 죽게 한 것을 우리가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도 우리 몸에서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11 이것은 살아 있는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으로써, 예수님의 생명도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12 그러므로 죽음은 우리 안에서 활동하고, 생명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합니다.
13 또한 성경에 “나는 믿었기에 말하였다네.”라고 기록된 것과 같이, 우리도 동일한 믿음의 영을 가졌으므로 우리 역시 믿고 말합니다.
14 이것은 주 예수님을 살리신 분께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살리시고, 우리를 여러분과 함께 그분 앞에 서게 하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15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더 많은 사람을 통하여 풍성해진 은혜로 감사가 넘쳐 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16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걸사람은 썩어 가고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나날이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17 우리가 받는 환난은 일시적이고도 가벼운 것인데, 이것은 우리를 위하여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도 중대한 영광을 이루어 냅니다.
18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보이는 것들은 잠시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11/13 주일

엡 6:10-20
10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주님 안에서, 그리고 그분의 강한 권능 안에서 굳세어지도록 하십시오.
11 마귀의 계략에 대항해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전투 장비로 무장하십시오.
12 우리의 싸움은 피와 살이 있는 사람들에게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지배자들과 하늘들의 영역에 있는 악한 영적인 세력들에게 대항하는 것입니다.
13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전투 장비로 무장하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이 악한 날에 대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모든 것을 다 처리한 후에도 서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14 그런즉 서서, 진리를 여러분의 허리띠로 두르고, 의의 가슴받이를 착용하고,
15 화평의 복음의 견고한 기초를 신발로 삼아 발에 신고,
16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잡으십시오. 그 방패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꺼 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17 그리고 온갖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구원의 투구와 그 영의 검을 받아들이십시오. 그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18 항상 영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힘을 다해 늘 깨어 있으며, 모든 성도들을 두고 간구하십시오.
19 또한 내가 입을 열 때에 나에게 말씀을 주시어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간구해 주십시오.
20 (내가 이 복음의 비밀을 위하여 쇠사슬에 묶인 대사가 되었습니다.) 이 복음의 비밀 안에서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히 할 수 있도록, 이것을 위해서 간구해 주십시오.

2022. 11. 7 ~ 2022. 11. 12
 단체로 읽을 말씀: 윌트니스 리 전집, 1971년, vol. 1, “인생의 의미와 올바른 헌신”, 6장
찬송: 477 (英) 베들레헴에 주님 (中:366)